"축제·행사 안전관리 중요"

최경식 남원시장, 확대간부회의서 이태원 참사 관련 관리강화 주문

남원시는 지난달 31일 확대간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경식 시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에 대해 언급하며 축제와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리강화를 주문했다.

최 시장은 "정부가 오는 11월 5일 24시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도에서도 11월 말까지 애도기간으로 정한 만큼, 남원시에서도 동참 의미로 각종 지역축제 및 행사 개최와 관련, 축소 및 취소 또는 연기 검토와 과도한 음주, 회식문화 절제 등 공무원 기강확립에도 각별히 신경쓸 것" 당부했다.

특히 "공직자의 최우선 책무가 시민들의 생명에 직결돼 있는 시민안전보장인 만큼, 23개 읍면동장들은 독거어르신을 비롯한 소외계층 등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23개 읍면동에서 다채롭게 추진되고 있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1일 1가구 소통행정' 정책이 어느 정도 지역에서 안착된 만큼 이제는 의무감보다 스스로 필요성을 느낄 지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수요가 여러 정책적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23개 읍면동과 시민소통실을 중심으로 시 정책에 반영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 시장은 이날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에 대해 "각 부서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하고 있지만, 최근 시에서도 정책분석관 임용 등을 통해 서울 사무소 조직을 강화하고 있고, 내달 8일 세종사무실 개소 등으로 국가예산확보의 교두보를 어느 정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이를 적극 활용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임실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호 파악 설문조사 진행

임실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답례품 선정에 앞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주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별도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임실군 홈페이지 및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참여 유도를 위해 설문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커피)을 제공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설문조사가 끝나는 11월 13일 이후 군 SNS에 공지된다.

군은 설문조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기초 자료와 답례품 선호도 등을 파악할 예정이며, 확보한 설문조사 결과는 추후 임실군 답례품 선정 및 기부금 사용처 결정 등에 활용된다.

심 민 군수는 "설문조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임실군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 기초 및 광역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10만 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보건소, 유치원 어린이 손씻기 예방교육

남원시 보건소는 코로나19 감염 및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의 동시유행을 방지하고, 어린이 감염병(수두,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성홍열)등을 손씻기 교육을 통해 예방하고자 유치원 대상 손씻기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내 유치원 27곳 중 사전 신청을 받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유치원 15곳 원아와 교사를 대상으로 손오염도 측정기(ATP)를 활용한 손오염도 측정 후 올바른 손씻기 실습과 코로나19 감염 및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개인수칙 안내, 인플루엔자 접종 독려 및 홍보물품(마스크)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남원시 수두 발생수 38명 중 15명이 미취학 아동으로, 수두는 피부병변과 접촉 또는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감염되므로 단체 생활 중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남원=김기두기자

순창군, 2022년 새내기 공무원 임용식 가져

순창군은 지난 31일 순창군청 3층 회의실에서 새내기 공무원 16명과 가족들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임용식을 가졌다.

이번에 순창군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9급 7개 직렬, 16명(행정 4, 공업 1, 농업 2, 녹지 1, 보건 1, 환경 1, 시설 6)이다.

이날 임용식에서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부군수·국·실·과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임용장 교부 후 신규임용자 선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신규공무원들은 가족들 앞에서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가족들과 함께 공무원 임용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영일 군수는 임용식에 참석하여 신규공무원들에게 임용장을 직접 교부하고 "공직사회 첫발을 내딛는 신규공무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훌륭한 인재를 키워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기자

김장페스티벌 뜨거운 열기에 사전 신청 연장

임실군, 14일까지 사전 예약… 원하는 날짜에 배송 채소값 오름세 상관없이 동일가격 적용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임실군표 김장 축제인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참여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실군과 농업회사법인 임실앤양념(주)이 주최한 제7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사전신청기간을 11월 14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번 김장페스티벌은 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고, 택배와 현장 수령(드라이브 스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품가격은 절임배추(20kg)와 양념(10kg) 세트 가격이 18만2000원(택배비 포함)이며, 임실앤양념(주)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직접 현장 수령할 경우 택배비가 제외된 17만5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사전 신청을 한 경우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원하는 날짜에 현장 수령이나 택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김장페스티벌에 준비한 물량은 채소값 오름세와 상관없이 당초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한다.

때문에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확보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은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2016년 첫해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해마다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청정 임실에서 생산된 좋은 품질의 배추와 고춧가루, 농산물을 활용한 신선한 김장 세트를 제공, 소비자들의 높은 신뢰와 호평을 받아 왔다.

지난해에는 총 90톤이 소진돼 4억5천만원의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군은 사업 물량 100톤을 확보하여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절임배추와 양념을 판매한다.

임실군 김장페스티벌은 김장을 기피하는 추세 속에서 절임배추와 양념을 신청하고, 집에서 버무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김장 축제라는 평가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생활스포츠 대회… 스포츠 명품 도시 구현

남원시가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10월에 배드민턴, 배구, 족구, 롤러, 야구 등 8개 대회가 성황리에 성료되었으며 지난 28일부터 30일에는 제1회 춘향배 전국 게이트볼대회와 29일에는 남원시장배 전북동호인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제1회 춘향배 전국 게이트볼대회는 춘향골 체육공원에서 17개시도 64개팀 선수 등 1,500여명이 8개 코트에 모여 대회 1일차는 적응 훈련, 2일차는 예선리그전을, 3일차는 결선리그 및 토너먼트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남원시장배 전북동호인 테니스대회도 춘향골 체육공원 테니스장 외 3곳에서 255팀 600명이 참가했다.

이어 11월에도 당구, 태권도, 유소년 배구, 마라톤 등 종목별 전국 규모 대회가 연달아 개최될 예정으로, 많은 선수단과 관광객이 남원을 방문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각종 생활스포츠 대회를 통해 스포츠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시, 드론 항공 클러스터 조성 적극 추진

남원시가 민선 8기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 중인 드론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경식 시장은 드론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기 위해 지난 20일 이용호 의원과의 면담에 이어 28일 김두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면담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김두관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최 시장은 시의 드론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설명하고, 그 중 미래 모빌리티기술 기반의 도심항공교통(UAM)을 교육하고 홍보하기 위한 'UAM 저밀도 관광 홍보관 및 관제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으며, 김두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남원시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에 공감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UAM 사업은 정부가 2025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첨단산업 으로 기업 간 기술력 경쟁과 지자체의 대상지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원시에서는 선제적으로 UAM 사업에 대해 교육하고 체험이 가능한 홍보관과 관제센터를 조성하여 관광인프라로써도 활용하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남원 =김기두 기자

순창 성가정식품, 발효식품 전북도지사상 수상

순창군의 대표 전통장류 및 절임식품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순창성가정식품이 개발한 '야채듬뿍 고추장찌개'가 2022년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서 주최한 2022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IFFE) 지정 우수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전라북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엑스포는 발효식품을 특화한 정부 공인 국제인증전시회로 세계 15개국에서 340여 개사가 참가했다.

'야채듬뿍 고추장찌개'는 식약처 HACCP 등 품질이 인증된 순창 농산물로 만든 전통찹쌀고추장과 국산 돼지고기, 국산 야채 및 채소를 곁들여 간편하게 물만 넣고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순창에서 4대를 이어오는 전통방식으로 만든 전통찹쌀고추장과 전통된장으로 맛을 내 매콤하고 깊은 맛을 표현했다.

특히 간편한 파우치 형태로 집뿐만 아니라 캠핑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제대로 된 한 끼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순창=이양원 기자